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년기 직장 남성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

옥상미, 전해성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The Effect of Spouse Support and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on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Sang-Mi Ok, Hye-Seong Jeon

Dept. of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퇴직을 앞둔 중년기 직장 남성을 대상으로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에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독립변인으로 은퇴불안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근무하는 중년기 직장 남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313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지지 수준은 중간보다 낮았으나 정서조절전략은 중간수준 보다 다소 높았고, 은퇴불안은 중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둘째, 배우자 지지는 은퇴불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요인으로 은퇴불안을 낮추는데 기여한다. 셋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은퇴불안에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중년기 직장 남성의 은퇴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배우자 지지를 강화시키는 실천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중년기, 직장남성, 은퇴불안, 배우자 지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Abstract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spouse support and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on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The survey was carried out with middle aged employed men worked in 5 major cities. 313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urvey except the ones insufficient respond.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Main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presented as follows. Spouse support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but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didn't have the effectiveness to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In conclusion, to alleviate retirement anxiety of middle aged men, in conjugal relations spouse support need to be strengthened.

Key Words : Middle Aged, working men, Retirement Anxiety, Spouse Support,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Received 27 October 2016, Revised 2 December 2016
Accepted 20 December 2016, Published 28 Dec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Hye Seong Jeon(Dept. of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Email: hsjeon@dankook.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중년기 남성들은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원하고 있고 긴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싶은 욕구들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중년기 직장 남성들이 당면한 현실은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도 전에 정리해고, 강제퇴직, 명예퇴직, 인원감축 등으로 심리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위기 이후 어려워진 경제난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더불어 40대~50대의 중·장년 근로자들의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상시화 되고 있으며 퇴직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1].

이러한 중년기남성의 심리적 어려움은 퇴직 전에는 불안, 초조, 두려움의 감정을, 퇴직 후에는 직업이 개인에게 제공해 온 유능감, 경제적 안정성, 정체감, 자존심의 손상과 함께 분노, 우울, 수치심, 열등감, 외로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된다. 중년기 직장 남성의 정체감은 평생 동안 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20~30여 년간 지속해 온 직업을 상실한다는 것은 '생활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는 일이기도 하다[2]. 중년기 직장 남성의 이러한 현실은 위기 대응이나 문제해결 능력, 자신감을 상실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직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심리적으로 위기를 맞게 되며 심리적 안정감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 재직자들은 은퇴를 스트레스와 불안의 시기로 지각하고, 만성적인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면서, 현저히 낮은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된다[3].

사실상,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개인에게 불가피한 문제임은 분명하다.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구조적 실직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년기 남성이 당면하는 은퇴불안의 현실은 바꿀 수는 없지만, 이들이 과도한 은퇴불안으로 인한 정신건강이 취약해지거나 및 심리적 위기를 맞지 않도록 관계상의 지지체계 및 기능적인 심리적 기제를 개발하는 것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일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배우자 지지는 은퇴를 앞두고나 은퇴를 한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안정감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4]. 배우

자 지지란, 배우자로부터 지지받거나 사랑,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지적 행동에 대한 인지적 평가,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소통되는 사회적 지지의 하나의 측면으로 배우자에게 배려, 도움, 위로, 지원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행동이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형성된 배우자 지지는 어떠한 외부 자원의 지지와 대치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자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지지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심리적 안정감과 정신건강에 보다 더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한편, 중년기남성의 불안 및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인 개인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 대처전략, 긍정정서 및 우울 등이 연구되어져 왔다. 그 중 대처전략은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 유용한 자원으로서 대처전략에 따라 은퇴에 대한 적응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란 정서적으로 지각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다루는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방법을 가리키며, 인지 혹은 인지적 과정은 감정과 정서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을 도우며, 정서를 통제하고 정서에 압도되지 않도록 유지시킨다[7].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트레스 대처 자원의 하나로, 개인의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충분한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인지적이며 의식적인 대처전략으로 감정을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이러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중 긍정적 대처전략과 부정적 대처전략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긍정적 대처전략보다 부정적 대처전략이 불안과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중년기 직장 남성의 은퇴불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중년기 직장 남성의 불안이 점차 중요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은퇴불안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는 관계적, 심리적 기제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퇴직 준비 교육, 재정적 준비, 정년 제도의 유형, 퇴직 후

생활적응, 재취업 유형과 적응 등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며[8, 9], 은퇴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 요소 및 이를 완화시키는 변인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중년기 남성의 은퇴불안을 낮추기 위한 대처기제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연구는 중년기 직장 남성의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근무하는 중년기 직장 남성 만 40세 미만 ~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설문에 협조를 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30명을 모집하여 중복 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기술한 17명(5%)을 제외한 총 313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40~45세가 48.1%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졸자가 66.3%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은 500만원이상 35.9%, 400~500만원 26.3%, 300~400만원 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	N	%
age	40 ~ 45	150	48.1
	46 ~ 50	82	26.3
	51 ~ 55	55	17.6
	56 ~ 60	21	6.7
	61 ~ 65	4	1.3
education	middle school	2	0.6
	high School	40	12.8
	College	207	66.3
	Graduate school	63	20.2
monthly income	~100million won	2	0.6
	101~2million won	4	1.3
	2.01~3million won	38	12.2
	3.01~4million won	74	23.7
	4.01~5million won	82	26.3
	5.01million won ~	112	35.9

2.2 측정도구

2.2.1 은퇴불안 척도

Fletcher와 Hansson(1991) 등이 사회적 은퇴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척도(Social Components of Retirement Anxiety Scale: SCRAS)를 이은주(2014)가 변안한 총 23개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0]. 이 척도는 총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감/정체성 상실(Social Integration and identity, by far the largest factor) 10문항, 사회적 자신감 상실(Social Adjustment /Hardiness) 6문항, 사회적 배제(Anticipated Social Exclusion) 4문항, 우정상실(Lost friendships)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은퇴불안의 신뢰도는 Cronbach's = .86이다.

2.2.2 배우자 지지 척도

배우자 지지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 중에서 정서적 지지 항목을 혼합 및 재구성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11]. 이 도구의 응답방법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정말 그렇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지지 수준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배우자 지지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 .92이다.

2.2.3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Garnesfski(2001)가 개발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CERQ: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한국의 김소희(2004)가 변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12]. 본 연구는 9개 하위 요인을 적응적인 전략(조망 확대, 긍정적 초점 변경, 계획 다시 생각하기, 수용)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16문항이고 5점 Likert 척도로 '1=전혀 그렇지 않다'~'5=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 .93이다.

2.3 분석방법

본 자료의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모형에 설정된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고자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공

선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년기 직장남성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는 <Table 1>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을 살펴보면, 배우자 지지는 평균(M)=2.90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평균(M)=3.62, 은퇴불안은 평균(M)=2.50으로 나타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

variable	N	Min	Max	Meam	S.D.
spouse support	312	1.00	5.50	2.90	.51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312	2.06	5.50	3.62	.60
retirement anxiety	312	.88	4.00	2.50	.53

3.2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pearson 상관 분석결과는 <Table 2>과 와 같다. 중년기 직장 남성의 배우자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경우 $r=.181$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p<.001$), 중년기 직장 남성의 배우자 지지와 은퇴불안의 경우는 $r=-.312$ 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은퇴불안의 경우는 $r=-.062$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variable	spouse support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retirement anxiety
spouse support	1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181***	1	
retirement anxiety	-.312***	-0.62	1

*** $p<.001$

3.3 배우자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중년기 직장 남성의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배우자 지지는 평균(M)=2.90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평균(M)=3.62, 은퇴불안은 평균(M)=2.50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우자 지지는 중년기 직장남성의 은퇴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중년기 직장 남성의 은퇴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Table 4> The Effects of Spouse Support and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on Retirement Anxiety

variable	B	SE	β	t-value(p)	R	R ²	Adjusted R ²
constant	3.461	.221		15.683(.001)***			
spouse support	-.324	.057	-.311	5.659(.001)***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005	.049	-.006	.106(.9016)	.312	.097	.092

*** $p<.001$

4. 논의 및 제언

4.1 논의

본 연구는 중년기 직장 남성의 배우자 지지 및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은퇴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우자 지지는 평균(M)=2.90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평균(M)=3.62으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은퇴불안은 평균(M)=2.50으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바람직하나, 배우자지지 수준이 다소 낮게 제시되어 부부관계의 기능성 및 상호지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국 부부체계에 상호간에 긍정정서 및 지지, 친밀감 등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3,14].

둘째, 배우자 지지는 은퇴불안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제시되었다.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직장 남성의 경우 배우자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사회·심리적 은퇴불안이 감소하며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웃이나 친구, 친척이 주는 사회적 지지보다 가족, 특히 배우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 [15]. 실직자의 경우에도 배우자 지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16]. 이처럼, 배우자 지지는 사회적 지지와 함께 탄력성의 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배우자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일관된 입장을 갖는다.

셋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은퇴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이 은퇴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점은 미래에 발생할 은퇴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정서적 조절을 위한 개인의 인지적 노력보다 배우자의 지지가 정서적 안정을 찾고 불안을 낮추는데 더 기능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선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정서인식 명확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그 연관성이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되어져 왔다[17]. 그러므로, 향후 중년기 남성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두 개념간의 관계가 좀더 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4.2 제언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은퇴불안을 경험하는 중년기 직장남성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배우자 지지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은퇴준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부부가 상호 존중과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 재형성을 위한 ‘배우자 지지 부부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실상 은퇴 후 부부관계는 이전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관계가 좋은 부부는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18,19].

은퇴적응을 위한 부부상담 프로그램은 은퇴 후 배우자와의 관계상의 변화를 미리 인식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부부가 서로 지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조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은퇴 전, 부부가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경우 부부는 은퇴 후 당면할 여러 어려움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발생가능한 부적응적인 요인들을 감소시키거나 조절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20, 21]. 한편, 본 연구에서의 배우자 지지는 은퇴불안을 겪고 있는 중년기 남성에게 제공되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를 의미하므로 배우자인 아내의 지지를 강화시키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부부가 원활한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방법에 대한 이해 및 기술습득, 연습을 통해 개별 부부에게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패턴을 마련하고 상호 정서적인 안정감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배우자 지지 부부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및 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S. Lee, “ Study on a Measure to Revitalize a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well-educated middle-aged class retiree-Based on H institution’s social contribution program -”.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2014.
- [2] K. H. Eun · O. B. Chung, “The Psychological Anxiety of Middle-Aged Men Who Expert to - Emphasizing upon the State-Trait Anxiety and the Opinion on the Present Retirement system-”.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0, No. 2, pp. 159-169, 1992.
- [3] A. S. Kim · G. Yoon, “Factor Analyses of The Mid-Life Crisis Scale in The Korean Adult”.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4, No. 1, pp. 73-87, 1991.
- [4] H. J. Bea · D. Y. Kim, “Father’s Childhood Attachment, Support of Spo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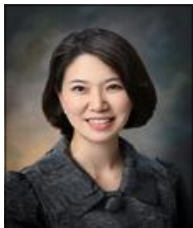
- Fathering Practice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7, No. 4, pp. 147-164, 2015.
- [5] M. G. Jung,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indfulness,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pousal support and marital satisfaction". Ph. D.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12.
- [6] S. M. Ok,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Strategy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Spouse Support on Retirement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Employed Me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2016.
- [7] Gamefski, N., &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8] B. W. Kim,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Retirement Counseling"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1, pp. 301-320, 2014.
- [9] S. M. Yung, "The Mediating Effect of Proactive Coping i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Clar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Focusing on Early Adulthood and Middle-aged Adul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2015.
- [10] E. J. Lee, "The impact of anxiety about social retirement and job satisfaction of middle-aged men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2014.
- [11] J. W. Park,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Ph. 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1985.
- [12] S. H.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the Stressful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4.
- [13] Y. C. Kim, J. A. Beak, " The Effects of 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2016.
- [14] E. S. Do, S. M. Lee, Y. S. Seo, "Related Factors of Quality of Life in Middle-male with Chronic Liver Diseas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pp.267-277, 2015.
- [15] J. A. Kim, "A study on how social supports impact senior citizens' feeling of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2007.
- [16] J. M. Youn · D. O. Chah, "Study on the Influences of Coping Strategies of the Unemployed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Outplacement Programs". *Korean Academy of Organization & Management*, Vol. 28, No. 3, pp. 193-221, 2004.
- [17] M. J. Kim · H. K. Lee, "The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as a Mediating Variable".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Vol. 25, No. 0, pp. 49-67, 2009.
- [18] H.S. Jeon, "The effects of the locus of control and Aging Anxiety on preparation for old age in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pp.571-576, 2015.
- [19] H.Y. Lee, H.S. Jeon. "The Relations of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Focused on Middle Aged People of Digital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2014.
- [20] Y. M. Jang, Y. H. Lim, M. S. Jung. "A study on the Wellness Change of Life in the Baby Boomer Generation" V.13, N.3, pp.215-220, 2015.
- [21] H.Y. Lee, H.S. Jeon "The influence of the locus of control of middle aged on life satisfaction and preparation for old age among in the times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pp.433-440, 2015

옥 상 미(Ok, Sang Mi)



- 2016년 2월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가족상담석사
- 2012년 5월 ~ 현재 : 가족상담 진행
- 관심분야 :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 가족상담, 청소년 상담 등
- E-Mail : jadeblue70@naver.com

전 혜 성(Jeon, Hye Seong)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 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건강, 가족 상담, 아동청소년 적응, 디지털교육 등
- E-Mail : hsjeon@dankook.ac.kr